

하반기 배합사료가격 전망

홍 순 찬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개요

현재 한국 축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그 전반에 걸쳐 전환기를 맞이했음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1차산업중 축산업은 민족생존산업으로서 또한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편승,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배합사료산업 역시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배합사료가격은 '88년말 한차례 가격인상이 있은 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및 양축농가의 경영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배합사료가격에 무엇보다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국제·사료곡물가격변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 선임, 환율의 변동, 기타 국내외의 여러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금년들어서는 주요 사료곡물인 옥수수가격의 상승과 아울러 그동안 비싼 곡류의 대표적 대체원료인 태국산 타피오카가격 역

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차손의 발생으로 수입원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해 이미 가격인상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축산물을 비롯한 배합사료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개방일정이 이미 예시화된 시점에서 축산업의 보호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배합사료가격 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인상요인을 흡수·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보완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사료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90년 하반기 배합사료가격 전망을 위해서는 국제 사료곡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84년이래 생산증가와 과잉재고로 저곡가시대를 누려오던 세계곡물시장은 '88년 미국을 비롯한 몇몇 수출국들의 한발피해로 고곡가시대로 급전된 뒤 한차례 조정국면을 보인 후 다시 강세를 보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농무성이 4월 10일 발표한 Crop Report에 의하면 '89/90년 세계 총곡물생산이 1,672.8백만톤, 기말재고량이 281.6백만톤으로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말재고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세계 사료곡물생산은 797.9백만톤, 기말재고는 116.4백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세계 옥수수생산 및 기말재고량은 각각 459.2백만톤, 67.80백만톤에 이르고 있다. 세계 옥수수생산중 미국산 옥수수생산은 191.20백만톤으로 연초예상과 같이 다소 증가한 반면 기말재고는 33.77백만톤으로 전월대비 10.1%(3.81백만톤), 전년동기대비 31.1%(15.27백만톤) 감소했다. 미국의 주요 옥수수생산국의 생산동향을 보면 4월 10일 현재 아르헨티나가 5.50백만톤, 남아공이 전월대비 6.7% 증가한 8.0백만톤, 태국이 4.0백만톤, 소련이 75.50백만톤 생산을 보이고 있다.

'90년 사료곡물공급도 지난해에 비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요측면에서 보면 곡물의 최대수입국인 소련·동구·일본 등의 구매요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 입장에선 별 유리한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미산옥수수 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년의 경우 4월에는 미국의 국내 및 수출수요가 둔화되고 미국 콘벨트지역인 중서부지역의 토양수분이

개선되어 시세가 안정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경우 기말재고량이 지난 10년중 최저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가격수준도 79~80년의 상승시점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가격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카고 곡물시장에서는 펀드머니의 행방이 가격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 달러의 강세, 엔화의 약세현상은 미국내 투기의 돈흐름이 소련 및 동구의 자유화, EC 통합문제 등으로 상품시장에 투기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의 옥수수수출이 사상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식부작업이 진행되면서 토양수분, 기후의 변동과 투기자금의 움직임에 따라 시세가 과민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의 경우 C&F 톤당 '89년 8월 126불, 12월 138불, 금년 1월 135불에 이어 5월에 들어서는 143불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산 옥수수의 경우도 강세를 보여 '89년 8월에 136불하던것이 금년 3월에는 150불까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중국산 역시 140불까지 상승한 후 보합세를 시현하고 있다. 수수가격도 미국산이 C&F 톤당 138불, 중국산이 128불, 아르헨티나산이 135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값비싼 곡류의 대표적인 대체원료인 태국

표 1. 세계 사료곡물생산 및 기말재고 현황

(단위 : 백만톤 / %)

구 분	85/86	86/87	87/88	88/89	전년대비 증 감	89/90	전년대비 증 감
이월재고	143.9	208.2	234.0	213.3	8.8	144.7	32.2
생 산 (옥수수)	842.7 (479.3)	833.7 (476.2)	792.1 (447.9)	728.3 (398.7)	8.1 (11.0)	797.9 (459.2)	9.6 (15.2)
총 공 급	986.6	1,041.9	1,026.1	941.6)	8.2	942.6	0.1
소 비	778.4	807.9	812.8	796.9	2.0	826.2	3.7
교 역	83.2	84.1	83.7	94.5	12.9	106.1	12.3
기말재고	208.2	234.0	213.3	144.7	32.2	116.4	19.6

주) 4월 10일 발표, U.S.D.A Crop Report

산 타피오카의 가격도 4월들어 C&F 톤당 80불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태국산 타피오카 하드펠렛구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들어 옥수수 등의 주원료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태국산 타피오카펠렛시세는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오름세가 지속되어 '89년 8월 57불, 12월 62불에 이어 금년 1월에 71불, 3월에 79.5불을 기록한 후 약보합세를 보여 5월 15일 현재 75.0불을 시현하고 있다.

향후 기타 곡물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캐나다 및 호주 등의 사료용소맥 공급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가격오파가 끊긴 상태이다.

표 2. 주요곡물 시세

(단위 : US\$/C&F M/T)

구 분	옥수수	수수	타피오카
'89. 8	126.20	124.30	56.50
9	127.70	124.30	54.50
10	133.20	128.60	50.20
11	137.80	132.50	57.00
12	138.00	132.00	62.00
'90. 1	135.30	131.20	70.60
2	134.70	128.80	76.30
3	137.80	132.50	79.50
4	142.60	135.00	73.00
5월 15일 현재	143.00	138.00	75.00

◆ 환차손에 의한 원가상승요인

이와같은 주요곡물의 상승과 함께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지난 '89년 8월을 고비로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화는 대미달러에 대해 금년 3월 현재 3.8%나 하락했고 여타통화에 대해서도 '89년에 비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원료가격에 영향하는 전신환매도율(TTS) 및 장부가격 역시 '89년 8월에 671.05원, 668.00원을 기록한 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9년 12월에는 TTS가 667.47원, 장부가격이 675원으로 하락했다. 올 들어서도 하락세는 가속화되 1월에 TTS가 686.18원, 장부가격이 684.00원을 기록했고 5월 15일 현재 TTS가 709.80원, 장부가격이 707.00원까지 하락했다.

표 3. 환율변동 추이

(단위 : 원/US\$)

구 분	전신환매도율(TTS)	장부가격	비 고
'89. 8	671.05	668.00	A
9	672.70	670.00	
10	673.80	671.00	
11	674.90	672.00	
12	677.47	675.00	
'90. 1	686.18	684.00	
2	692.69	690.00	
3	700.43	698.00	
4	708.90	706.10	
5월 15일 현재	709.80	707.00	B
B-A	38.75	39.00	5.8%인하

주) 월평균 환율임.

이같이 원화가 급속도로 하락하는데는 국내적으로는 수출의 부진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고,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세계외환시장에서 빠른 절상추세를 보인 미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의 하락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첫째, 해외부문으로부터의 구매력이 약화된다. 즉 해외로부터의 수입원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및 기업의 경영방향에 있어 원료구매가 위축되므로, 사료사업의 경우 원료의 안정적 확보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된다. 둘째,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수입제품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국

내 제품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산물이 개방되었고, 추가품목에 대해서도 개방화일정이 예시된 상황에서는 이의 관련제품 수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생산원가의 상대적 상승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특히 배합사료산업의 경우는 단순소비재생산이 아닌 축산물의 생산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종으로 결국 국내 축산물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수입되는 원료가격 상승과 이로인한 가격경쟁력의 저하는 국내산업전반에 걸쳐 생산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표 4)는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하락세를 시작한 '89년 8월의 환율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90년 4/4분기 환율변동에측을 감안하여 도입가격상승율을 추정한 것이다.

옥수수, 수수 및 타피오카의 경우 금년 4월시세를 기준가격으로 할 때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의 변동폭에 의한 도입 가격의 상승율은 '89년 8월대비(TTS 671.05·장부 668.00) '90년 5월(TTS 709.80·장부 707.00)에 옥수수가 톤당 104,911원에서 110,865원으로 상승해 5.7%, 수수가 톤당 101,244원에서 106,984원으로 상승해 5.7%의 상승효과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타피오카의 경우도 톤당 59,852원에서 63,019원으로 상승돼 5.3%의 상승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90년 5월대비 10월(TTS 733.00·장부 730.00)에는 옥수수 톤당 110,865원에서 114,429원으로 3.

2%, 수수가 106,984원에서 110,422원으로 3.2%, 타피오카가 63,019원에서 64,918원으로 상승해 3.0% 가격상승 효과를 시현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난 바대로라면 품목별 도입원가는 전신환매도율이 5월/US\$ 하락할 때마다 옥수수 및 수수가 0.7%, 타피오카가 0.6%의 가격상승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곡가의 상승 및 환율변화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효과를 추정해 보면 '89년 8월의 배합사료가격이 톤당 132,807원으로 이를 기준가격으로 할 때 '90년 전반기('90.1월 시세 및 환율적용) 가격은 톤당 136,883원으로 3.6%, '90년 하반기('90.5월 15일 현재 시세 및 환율적용) 가격이 톤당 141,766원으로 6.7%의 상승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합사료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세계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이 현상태에서 더이상

표 5. 곡가상승 및 환율변화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효과

(단위: 원/톤)

구 분	배합사료가격	비 고
'89. 8(A)	132,807	
'90. 1(B)	136,883	
'90. 5(C)	141,766	
인상효과 (%)	A/C	8,959(6.7)
	B/C	4,883(3.6)

주) 옥수수, 수수, 타피오카외의 원료는 '89.8월 환율 및 시세 적용

표 4. 환율변화에 따른 도입원료 가격비교

(단위: 원/C&F M/T)

구 분	'89. 8		'89. 10		'89. 12		'90. 3		'90. 5		'90. 8		'90. 10	
	TTS	장부	TTS	장부	TTS	장부	TTS	장부	TTS	장부	TTS	장부	TTS	장부
	671.05	668	673.80	671	677.47	675	700.43	698	709.8	707	723	720	733.00	730
옥 수 수	104,911		105,334		105,898		109,425		110,865		112,894		114,429	
수 수	101,244		101,650		102,195		105,597		106,984		108,941		110,422	
타피오카	59,852		60,076		60,376		62,254		63,019		64,099		64,918	

주) ① 옥수수, 수수, 타피오카의 기준가격은 <표 3>의 '90년 4월 시세 적용

② '90.8, '90.10 환율은 전망치 적용

악화될 여지가 없고, 세계경제의 안정으로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의 하락세가 3/4분기 이후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 요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진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상요인흡수를 위한 정책적 보완

이러한 세계곡물의 고가격현상과 원화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원가상승요인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 어느정도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축산업의 보호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계속 증대되고 있는 배합사료 원가상승요인을 흡수기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는 크게 분류하여 국산옥수수 차액보상 문제,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인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 대맥 등 경제적 원료의 수입허용 및 기타 원료의 수입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국산옥수수의 사료용 및 공업용의 배정은 농업생산기반 보호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정책의 일환으로 배정하고는 있으나 국내생산량 및 자급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정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수매가격과 이에 수반되는 취급수수료

등 제비용이 합산된 금액은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되어 결국 양축농가에 전가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계층이 광범위하고 그 부가가치가 높은 양조용 및 식품가공용으로 배정하여 양축농가로 귀착되는 제도적 모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국산옥수수의 경우 가격면에서 수입옥수수에 비해 4배 이상 비싸므로 그 양이 적다고는 하지만 원가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88년산의 경우 사료용으로 46,770톤의 국산옥수수가 배정되어 수입차액 발생액(352억원)의 58%에 불과한 것이며, 무려 147억원의 추가부담이 '89년에도 양축가에게 전가된다.

현재 사료용 수입원료에 대한 현행관세율은 3~15%로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고율(高率)이며, 품목

표 6. '89년도 국산옥수수 차액보상을 위한 추가소요액

수매물량	국산옥수수 인수가격(A)	수입옥수수 가 격(B)	차 액 (A-B)	요보상액	추가소요액
(톤)	(원/톤)	(원/톤)	(원/톤)	(백만원)	(백만원)
93,211	490,220	113,000	377,220	35,161	14,661

주) 요보상액 : 377,220원×93,211톤
 추가소요액 : 35,161백만원-20,500백만원(기화보액)





미국산 옥수수의 경우

C&F 톤당 89년 8월 126불,

12월 136불, 금년 1월 135불에 이어

5월 들어서는 143불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간에 격차가 심하여 원료의 선택 및 상호대체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배합사료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옥수수와 소맥의 관세율이 3%인데 비해 기타 곡류(수수, 귀리, 호밀)는 5%, 타피오카는 7%의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값싼 기타 곡류를 수입사용할 경우 오히려 원가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있어 원료선택의 경제성이 도외시되고, 이로 인해 양축가와 사료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의 보호 및 개발사용이란 측면에서도 기타 곡류, 타피오카 등은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태로서 국내 생산 잠재력이 있는 옥수수보다 저율관세를 적용, 이의 수입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율관세를 적용해 값비싼 옥수수 수입을 권장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관세제도하에서는 기타곡류 수입이 증가할 경우 관세수입은 감소가 다소 예상되나, 국제수지 및 양축가의 부담경감에는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와같은 곡종간의 차등관세율적용과 고율(高率) 관세는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이 되므로, 사료용 수

표 7.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 비교

(단위 : %)

구 분	옥수수	소 맥 수 수	귀 리	강피류	타피오카	알팔파
한 국	3	3	5	5	7	15
일 본	0	0	0	0	0	0

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사료곡물 생산국이며 수출국임.

입원료에 대한 기본관세의 최저율유지(0~3%)와 사료원료의 경제적 대체성을 감안하여 관세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는 기타곡류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옥수수와 같은 3%의 관세를 적용하여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그 세액의 부담이 시장의 유통기구를 통하여 전가되고,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간접세이다. 그러나 현재 배합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사료생산자에게 부과되어 가격상승을 유발, 결국은 제품의 최종소비자가 아닌 축산물생산자인 양축농가에 그 부담이 전가되는 조세체계의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 운용은 축협지역조합공장제품에 한해서는 '90.12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되고 있으며, 나머지 민간배합사료 및 축협중앙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축협지역조합생산분에 대한 부가세의 면세가 양축농가의 부담경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전체물량중 11% 해당물량만을 대상으로한 명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동질의 상품에 대한 차등가격은 형평의 원리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87년 '88년의 경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로 양축농가에서 부담한 금액은 무려 1,272억원, 1,527억원으로 추정된다.

1차산업중 축산업은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인식되어 왔고, 경중분야 종사자들이 소규모나마 대부분 축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보다 효과적인 농어민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농기구, 비료 등과



마찬가지로 축산물 생산원자재인 배합사료의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8. 영세율적용시 농가생산비 경감액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88생산량 (천톤)	생산비경감액추정	
		영세율적용	부가세면세
민간사료공장	7,504	124,896	58,441
축협사료공장	2,263	27,814	8,357
중앙회	1,179	18,494	8,357
지역조합	1,084	9,320	—
계	9,767	152,710	66,798

사료용 대맥이 수입·사용될 경우 물량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소맥·수수 등의 경제적 대체원료가 될 뿐 아니라 기타 곡물의 선택범위를 넓혀주어 사료원료수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사료용 대맥은 돼지고기의 육질개선효과를 지니고 있어 돈육수출에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대가축에 있어서도 옥수수 못지않은 사료적 영양가치를 지니고 있다.

양어 및 양건사료생산이 급증하여 사료용 동물성 단백질 원료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생산능력의 한계와 수입추천의 경직 등으로 공급이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또한 어분 및 육골분에 대한 수입추천권이 실수요자 단체가 아닌 타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적시적량 수입기회를 열실하여 수급불균형이 초래되어 원료사용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 여건에 편승하여 최근 양어 및 양건사료가 범람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위와같은 특정원료의 수입불허 및 수입쿼터·추천제도는 사료용 원료의 수급차질은 물론 적정시기의 일실 등으로 외화낭비요소가 발생하므로 결국 배합사료는 물론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축산업 및 배합사료산업은 개방화시대의 도래 등 수많은 악재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가격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합사료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양계**